



연길 문화관광 고품질 발전의 중요 창구로

혁신과 돌파 속 ‘흐름량’에서 ‘보유량’으로의 화려한 변신

근년래 연길은 ‘보물도시’로 불리며 독특한 조선족 풍정으로 빈번히 검색리스트에 올라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오늘날 연길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쇼핑하는’ 산업사슬이 전면적이고 패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현역관광이 고품질 발전의 중요 창구로 부상하고 있다.

요즘 들어 쌀쌀한 한기가 옷깃에 스며들고 있지만 관광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민속원에 들어서니 조선족 복장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이 어여쁘게 단장하고 고풍스러운 옛 가옥을 누비면서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다. 이곳저곳 사타소리와 함께 너도나도 사진사의 요구에 맞춰 이쁜 포즈를 취한다.

북경 관광객 장효정은 연길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조선족 공주’로 변장해 예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연길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민속원은 조선족 풍정이 한결 절집니다.”라고 말했다.

‘특색 있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한 도시로 향한다.’ 오늘날 연길 관광 촬영(延吉旅拍)은 연길의 ‘새로운 명함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일한 풍정은 연변대학 ‘왕홍백’에서도 매일 펼쳐지고 있다.

10월 19일 저녁 8시경, 구름민속복장관광촬영점(云朵民俗服饰旅拍)은 밤 늦게까지 불빛이 환하다. 복무원들이 친절하게 접대하고 추천하며 몸에 맞는 옷을 골라준다. ‘조선족 공주’들이 연변대학 앞 이곳저곳에서 ‘왕홍백’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있다.

관광촬영업계의 흥기는 현지 시민들에게 새로운 창업 방향을 제공했다. 구름민속복장관광촬영점 책임자

마운은 웨딩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2023년 연길 관광 발전의 기회를 잡아 구름민속복장관광촬영점을 개설했다. 그는 고품질의 서비스, 세련된 화장 솜씨, 예쁘고 다양한 조선족 민족복장 등 여러가지 우세로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면 현재의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가성비 높은 사진촬영을 제공하며 랑질의 체험을 주기 위한 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마운, 그의 소개에 따르면 지금은 6명의 전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24시간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국경절 기간에는 연 500여명의 손님을 접대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연길시의 신규 경영주체는 도합 9,818 가구로 연길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에너지로 주입했다.

관광촬영외에도 ‘연길’ 두 글자가 새겨진 커피를 들고 연변대학 ‘왕홍백’ 앞에서 출석사진을 남기는 것도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리스트중의 하나이다.

상주인구가 70만명 안되는 변경의 현역 도시에는 커피점만 해도 800개가 넘는다. 메이탄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변 커피숍의 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수부인 연길은 인구 1만명당 커피점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현역 커피의 왕(县咖之王)’으로 불리운다.

후랑커피(后浪咖啡)는 최초로 ‘연길’ 글자가 새겨진 커피잔을 만든 커피전문점이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후랑커피 창시자 장승이 연길에 대한 깊은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뜻밖에도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왕홍백’ 출력 필수 ‘왕홍컵’으로 되었다.

‘왕홍백’ 카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왕홍컵’이 되었다. 도시 상표의 원창커피는 연길의 문화 기질을 상징하고 또한 연길의 새로운 관광 소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도시 태그가 붙여진 문화 창의 커피는 문화적 기질을 첨부하고 연길의 새로운 관광 소비 풍경을 조성했다.

6평방미터 밖에 안되는 커피숍으로부터 하루에 1,800잔의 커피를 파는 기록을 세우기까지 후랑커피는 이어 ‘연길’ 시리즈 물컵, 셔서 등 문화 창의 제품을 출시, 사랑과 온정을 커피사업에 녹여내고 도시생활에 담아냈다.

오늘날 연길 커피업계의 산업사슬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데 많은 독립 브랜드 커피점들은 수형집, 주전자,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자체 커피제련공장을 설립하여 교육과 훈련을 전개함으로써 업계에 인재를 공급하고 비축하고 있다. 또한 커피전문가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평가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연길 커피업계의 변화와 함께 G33 국도도 이 소도시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 국도는 연변 변경지역을 연결해 대부분의 자가용 운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연길로 안내했다. 혁명유적지나 흥색장소를 출철하거나 혹은 시골 민박집을 찾아 하루를 힐링하면서 즐기는 것은 관광객들이 연길 관광을 즐기는 옵션중 하나이다.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촌은 연길에서 서북쪽으로 15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해있는데 이는 흥색관광, 조선족 민속 체험, 연학관광, 그리고 음식, 숙박, 오락을 일체화한 민족 특색의 흥색마을이다.

연길시의 첫 2개의 중화민족공동체식 확고히 수립 연학중심으로서 태흥촌 흥색마을은 청소년 시기 특장과 교육 수요를 결합해 장면식, 상호작용식, 체험식, 몰입식의 특색 있는 연학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연학교육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마을의 흥색문화를 방문하고 배우며 흥색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정신적 력량을 결집하도록 한다.

근년래 연길시는 ‘흥색발전’을 충분히 활용하고 ‘1촌 1주제, 1촌 1계획’에 따라 흥색문화를 깊이있게 발굴하여 조양천진 태흥촌, 소영진 오봉촌, 삼도만진 동구촌 등 흥색자원 마을을 이어놓아 흥색자원 개발과 향촌진흥사업의 깊은 융합을 실현했다.

“치치할에서 출발하여 가장 아름다운 G331 국도를 거쳐 연변에 진입해 훈춘 방천과 도문 국문을 거쳐 연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식도 맛보고 풍경도 감상하며 민속 체험을 진행하는 한편 아이와 함께 몰입식 연학관광을 진행하였는데 보람찬 관광이었습니다.” 치치할에서 온 관광객은 연변 관광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엄지를 내밀었다.

다양함을 한번에 한껏 즐길 수 있는 연길, 매력적인 이 ‘보물도시’는 조선족 민족의 다양함, 커피문화의 독특함, 흥색관광의 엄숙함이 어우러진 독특한 방식으로 다원화 문화 요소를 융합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문화관광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연길은 관광객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으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돌파 속에서 ‘흐름량’에서 ‘보유량’으로의 화려한 변신을 실현하고 있다.

/ 길림일보

전국 국유기업 자산 총액 371조 9,000 억원

2023년도 국유자산 관리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종합보고가 11월 5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차 회의에 제출되면서 국유자산 최신 ‘밀전’이 발표했다.

2023년말까지 전국 국유기업 자산 총액은 371조 9,000 억원, 국유금융기업 자산 총액은 445조 1,000 억원,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총액은 64조 2,000 억원, 국유토지의 총면적은 5조 2,371만 4,000 헥타르, 연간 수자원 총량은 2조 5,782억 5,000 만립방

메터이다.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국유자산 관리 및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밀전’이 더 풍부해졌다. 다음 단계에는 국유기업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국유 금융자본 서비스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유자연자원 자산관리 체계를 개선하며 국유자산 보고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 신화넷

우리 나라, 첫 빙설경제 발전 금융지지정책 제기

11월 6일, <빙설운동의 고품질 발전으로 빙설경제 활력을 활성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 공개 발표되었다.

당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체육총국 부국장 리정은 이 문건은 매우 적시적이며 빙설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한층 더 추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은 최소 네가지 돌파가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 경기공연산업을 발전시킨다. 의견은 종합성 빙설경기활동에 대해 위험평가, 안전관리조치 개진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관심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동시에 경기활동의 판매 가능 입장권 수를 증가하여 빙설경기활동을 감상하고 참여하는 관중들의 체험감을 높인다.

둘째, 빙설인재 대오를 튼튼히 다진다. 의견은 현유의 대학교에 빙설운동 학원을 설립하는 데 의탁하여 조건이 있는 대학교, 직업학교에서 빙설운동, 빙설경제 등 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산업과 교육 융합의 실제 훈련기지를 구축하는 등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이런 정책은 빙설인재 발전의 단점을 보

완하고 빙설인재 대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금융지지 강도를 높인다. 의견은 금융기구가 금융 제품을 혁신하여 빙설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을 강화하고 등급평가, 신용부여, 승인, 대출후 서비스 관리 등 신용대출 절차를 최적화하는 것을 격려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빙설기업의 성장과 재융자, 채권 발행과 자산증권화 등을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처음으로 제기한, 빙설경제 발전을 금융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으로서 빙설기업의 융자, 융자가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넷째, 토지리용정책을 보완한다. 의견은 빙설경제 부지 수요를 국토공간 상세계획 및 국토공간계획 ‘한장의 지도’ 실시간 감독 정보계통 관리에 포함시켜 신규 건설부지 연간계획 지표에서 빙설 대상 부지 보장 등 일련의 정책 조치를 강화한다고 제기했다. 이런 조치는 토지리용에서의 빙설경제의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빙설 장소와 시설의 공급을 강화하여 군중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2024 — 2025 연변 빙설관광시즌 정식 가동

7일,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중심에서 열린 2024 — 2025 연변 빙설관광시즌 가동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연변은 100여가지 다양한 겨울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행사는 ‘50가지 미식 소개’, ‘100가지 관광기념품 선정’, ‘6가지 테마관광 코스 개발’, ‘7가지 보장’ 특별행동을 펼쳐 ‘100일 난관공략’ 행동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빙설+’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경쟁 우세를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이번 행사를 통해 겨울철 관광산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고 ‘장백산 천하설, ‘길’의 아름다운 연변에’ 문화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전국에서 유명한 겨울철 관광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주상무국은 ‘빙설+소비’를 주제로 ‘빙설미식시즌’(冰雪美食季), ‘빙설우대구입시즌’(冰雪惠购季), ‘빙설빅데이터구입시즌’(冰雪云购季), ‘빙설환신시즌’(冰雪焕新季), ‘빙설국조시즌’(冰雪国潮季)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비 열기를 끌어올리고 ‘음식, 숙박, 관광, 오락, 쇼핑’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빙설 소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소비 경험



▲ 울거울, 화룡 료리커호풍경구는 5,000 만원을 투입하여 승격 개조를 진행, 관광객들은 몽환적인 ‘동화세계’에서 북국의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을 제공하게 된다.

주체육국은 ‘3억명이 참여하는 빙설 스포츠’를 목표로 이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빙설시즌 기간 주체육국은 국가급, 성급, 주급 및 각 현(시)급 스케이팅, 스키, 빙설모터 등 11가지의 빙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각 현(시)에서는 대중

스케이팅, 눈발축구, 빙설운동회 등 10여가지 종류의 빙설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안도현에서는 ‘98730’전략을 중심으로 빙설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인 가운데 ‘장백산 천하설, ‘길’의 아름다운 연변에’ 2024 — 2025 안도장백산빙설관광축제 등 9가지 브랜드 행사를 기획, 개최하게 되

/ 김영화기자

며 화산 온천 등 8가지 독특한 상품을 선보이고 환상적인 표류관광 코스 등 7가지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며 대두산촌 등 30곳의 인기 관광지를 개성있게 조성해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등 안도현을 매력적인 겨울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훈춘통상구 출입경 려객, 연인원 60 만명 돌파

11월 6일, 훈춘출입경변검문소사이에 따르면 올 들어 출입경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워짐에 따라 훈춘통상구를 거쳐 출입경하는 인수가 끊임없이 상승하여 현재 이미 연인수로 60만명을 돌파했다.

훈춘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중로조 3국 접경에 위치한 변경 도시이다. 최근년간 훈춘시는 관광 기반시설 건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관광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관광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 외국인들이 안심하는 소비환경을 적극 조성했다. 훈춘통상구는 길림성의 유일한 대 로씨야 도로통상구로서 로씨야 올라지보스토크, 자르비노, 포세트 등 도시와 직통할 수 있으며 편리한 교통 조건은 국경간 관광에 큰 편리를 제공하여 점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훈춘통상

구로 출입경하고 있다.

훈춘시통상구관리서비스센터 부주임 양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출입경 관광객들의 통관 체험을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련합검사단위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통로를 합리하게 설치하고 일터를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통관 시간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통해 윈스톱 통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출입경 관광객들에 더욱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통상구 기반시설 건설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통상구 통관 환경을 전력으로 개선하며 서비스 의식과 업무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출입경 관광객들에게 랑질적이고 능률적인 통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관 과정이 순조롭고 막힘이 없도록 확보하고 있다.

/ 연변조간

가 요 배꽃사랑

배꽃사랑

작사 주 통
작곡 박동호
노래 김해연

배꽃처럼 순결한